



종교개혁과  
교육

### 왜 종교개혁인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가톨릭교회 교권자들에게 항의하기 위해 비텐베르크교회 정문에 95개조의 의견서를 부착하였던 일이 1517년 10월 31일이었으니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올해는 일찍부터 종교개혁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기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여러 기독교기관에서 감지되고 있다. 그 배경은 5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숫자의 비중도 있겠지만, 사실 교회 개혁 요구의 절박성 때문이다.

한국 개신교 교회는, 종교개혁이후 가톨릭교회로부터 개혁된 서구 개신교 전통 교회들의 선교로 세워진 교회이며, 이제 겨우 130여년을 넘어섰다. 한국교회에게 종교개혁은, 엄밀하게 말하면 한국교회의 역사가 아니라 서구교회 역사로부터 ‘들은 먼 나라 이야기’이다. 종교개혁이후 개혁교회의 슬로건이 된 ‘지속적 개혁’도 장로교 역사신학 수업에서는 칭송되지만, 교회에서는 ‘들은 먼 나라 이야기’이다.

한국개신교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리고 해방직후 고신파에서 일어난 장로교회 내 신사참배회개운동 외에는 광범위한 종교개혁을 경험한 일도, 종교개혁을 시도한 일도 없다. 무엇과 달라야 하며, 무엇을 개혁해야 할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았다.

최근 한국교회는 세속적 자본주의 사회의 종교영역 표현(version)처럼 보인다. 한국사회 내에서 구조적 문제가 비난받으면서 변화와 개혁요구가 커지면 한국교회 내에서도 변화와 개혁요구가 커진다. 일부 교회지도자들이 보여준 교권을 통한 세속적 성공주의와 권위주의, 사업가형 교회지도자들의 무리한 성장주의, 그리고 일부 교회지도자들의 실망스러운 도덕의식 수준은 더 이

상 교회 내의 비밀이 아니라 충분히 공개된 일이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특별히 의미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는 이러한 다급한 현실의 필요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한국교회가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영적 싸움을 벌여야 할 원수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지내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원수와 친화하여 구조적으로도 연결되었다. 이에 한국교회는 개신교의 출발점이 되는 종교개혁을 깊이 숙고하면서 결단하여, 구조를 바꾸고, 개혁운동을 감행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이미 와 있다.

### 교육은 종교개혁 운동의 실제적인 방법이었다

종교개혁과 관련하여 교육을 주목하는 것은 필수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일이다. 교육은 종교개혁의 일부인 동시에 종교개혁운동의 실제적인 방법이었던 때문이다. 종교개혁자들에게 교육이 자연스러운 종교개혁 방법이었던 이유는, 루터와 칼빈 등 종교개혁자들이 교권을 가진 성직행정자가 아니라 교회의 교사이면서 학자인 성직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된 인격과 전문성이 교육에 있었으므로 그들의 관심은 교회의식과 사역, 그리고 분화된 학문으로서의 신학에 제한되지 않았다. 그들은 학교의 사람들이었다.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기독교적 정체성이 형성되었고, 마찬가지로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시키려 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종교개혁은 교회내의 권력과 구조, 도덕의식 개혁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종교개혁은 종교문제로 출발하였지만 당시 사회에서 종교는 현대사회에서 개인문제로 간주되곤 하는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면서 삶의 전체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은 교회의 개혁, 학문과 문화의 개혁, 사회의 개혁, 일상적 삶의 개혁을 동반하여 시대의 변화를 만들어내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교회의 문제를 넘



**조성국** Potchefstroomse Universiteit vir Christelike Hoër Onderwys에서 교육철학을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객원연구원으로 있었다. 한국복음주의기독교교육학회 회장 역임하였으며 현재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이자 기독교세계관대학원장이다.

어 지역사회 공동체의 문제, 국가의 문제, 시대의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종교개혁이 신학자만의 관심사, 신학교육의 관심사로 제한된 것은 세속화된 근대국가 확립과 근대학문지배 이후의 일이다. 특히 19세기 이후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교회를 학교와, 신학을 근대학문들과, 신학대학교를 일반대학교와 엄격하게 구별하곤 했다. 이는 세속적인 근대국가의 확립으로 사회 내 제반 영역에서 종교의 권위와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배제되면서 교회와 신학이 취한 자기보존의 소극적 대응의 결과였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 대응으로 종교개혁의 의의는 교회 내로 축소되었고, 학교와 교육에 대한 교회의 관심은 크게 약화되었다. 많은 경우 교회와 신학이 사회와 문화와 세계를 관심밖에 뒀으므로 그 모든 영역을 세속국가에 고스란히 내어주게 된 것이다.

#### 개혁의 시대, 무엇을 가르쳤는가?

종교개혁과 교육을 오늘날 새롭게 검토해야 할 필요는 근대이후 교회와 신학이 취한 소극적인 반응의 실패 결과 때문이다. 종교개혁을 성공적인 운동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교육을 통해 효과적으로 개혁운동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교육은 개인적으로는 내면 확신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교회의 교육은 신앙 이해와 예배 의식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학교의 교육은 세계관의 변화와 확립,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종교개혁자들이 로마가톨릭교회와 차별화된, 참된 개혁교회와 개혁신앙을 확립하려고 첫 번째로 실행한 교육은 교리교육이었다. 교리교육은 기독교신앙과 삶에 대한 체계적인 요점교육이었다. 교리는 신학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더 실제적인 의도는 교육에 있었다. 단순한 형태의 교리교육서, 문답형식의 교리문답서, 신학적 의미를 해설하는 기독교강요 등이 교회의 공적인 고백서, 교과서와 참고서가 되었다. 교리교육서는 성례와 심방을 통해, 그리고 교회교육과 학교수업을 통해 반복하여 가르쳐졌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듣고 읽을 수 있도록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였고, 개혁교회는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공적 경전으로 승인하였으며, 교회예배를 더 이상 성례 중심의 미사가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여 가르치는 설교 중심으로 바꾸었다. 모국어 성경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이 예배의 중심에 자리잡게 되었다.

종교개혁자들은 로마가톨릭교회가 지배하던 시절처럼 의식과 문화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신앙을 느슨하게 수용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교리교육과 성경해설로 참된 신앙을 분별하여 이해하고, 의문을 해명하여 확신에 이르게 한 것이다. 칼빈의 경우 목회자는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형의 목사였고, 교회는 양육하는 어머니였다. 전형적인 교육목회였던 셈이다. 근대이후 교리가 타협할 수 없는 신학적 논쟁문제로 간주되고 교리교육이 권위적인 딱딱한 교육처럼 간주되어 흥미를 잃었고 제대로 실행되지 않게 되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확신의 근거를 개인의 체험에 두었고, 지성적 확신의 안정성이 크게 약화되었다. 교회들이 교리교육을 포기함으로써 공적 신앙고백에 기초한 공교회 의식이 약화되어 개교회중심주의에 빠져들게 되었다. 교리교육의 부재는 확신 없는 그리스도인, 이단에 취약한 그리스도인, 공교회 개념 없는 자의적인 교회가 동 현상 외에도 교회관의 동이가 이루어지지 않아 초래되는 교회 내 인간관계와 정책 문제 갈등을 초래하였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두 번째로 시도한 교육은 학교교육이었다. 특히 루터는 모국어 초등교육의 보편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전에는 교육이란 주로 교회와 사회 지도자 양성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종교계와 사회권력층 자녀들의 특권이였다. 교육 언어인 라틴어는 교육기회와 가능성의 장벽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루터는 여자아이도 공부할 수 있는 보편적인 모국어초등학교 운영에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득하였다.

칼빈도 제네바학교에서 모국어초등교육과 더불어, 교회와 사회 지도자 양성을 위한 라틴어와 인문 교육, 그리고 신학교육을 실행하였다. 칼빈은 잠시 스트라스부르크에 있을 때 교회목회만 아니라 요한 스투름이 운영하는 스트라스부르크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칼빈은 이후 제네바로 돌아가 그 모델을 활용하여 학교를 재건하였다. 칼빈이 재건한 제네바아카데미는 유럽 전역에서 학생들이 개혁신학을 배우기 위해 몰려드는 유명한 학교가 되었고, 이후 유럽 개신교지역 학교들의 모델이 되었다.

종교개혁자들이 학교교육을 실행했던 것은 교회가 전반적인 기독교교육활동을 할 수 없었고, 그 기능은 학교가 수행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성경적 세계관으로 수준 높은 교육을 실행하여 종교개혁운동을 지속할 인재를 양성하는 방법이 아니고는 종교개혁의 확산이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학교는 언어와 문화, 사회와 세계를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사회 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성을 구비시키는 곳이다.

19세기에 이르러 근대국가가 공교육을 제도화하여 독점 운영하면서 교회는 학교 운영의 권한을 상당부분 상실하였다. 정부주도의 학교는 인본주의적이고 자연주의적인 세속적 근대세계관을 적극적으로 형성함으로써 전통적인 기독교세계관을 옛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탈종교적인 세속사회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학교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신념체계는 빠른 속도로 인본주의적이고 자연주의적인 근대 세계관으로 변화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의 종교적 헌신은 현저하게 약화되었고, 20세기 중반이후부터는 교회가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한 도전에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교육을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였고, 교회와 학교와의 관계를 의미 있게 생각해 내지 못함으로써 기독교인들을 세계관의 혼합성과 이원성에 방치되게 만들었다. 사회와 문화와 세계를 가르치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학교이다. 기독교학교가 없는, 혹은 학교교육의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는 교회는, 기독교세계관 형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해방이전까지 미션스쿨을 주요한 기독교사역으로 여겼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교육받은 계층에서도 큰 열매를 맺었다. 그러나 해방이후 한국교회는 개교회 확립과 성장에만 집착한 나머지 학교를 의미 있는 기관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기독교학교교육의 부재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 세계관, 각종 이데올로기, 특히 자본주의 세계관을 기독교세계관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 여러 세계관들이 내면에 혼재하고, 실용적으로 적용 영역을 구분하는 분열현상을 보인다. 그 결과가 한국사회 세계관에 연동되어 움직이는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종교개혁 당시 거짓교리를 가르치던 권세자 로마가톨릭 교회의 자리에 오늘날 지독히 세속적인 현대사회가 대신 서있다. 그렇다면 로마가톨릭교회가 가르쳐 온 거짓된 교리와 이원론적 세계관은 오늘날에는 인본주의적이고 자연주의적인 세속적 세계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개인주의 등의 정치이념들, 특히 자본주의 이념일 수 있다. 종교개혁은 교회개혁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광범위한 것으로서 사회문화의 개혁, 전체적인 시대의 개혁이었다. 종교개혁은 참된 교리 이해를 통한 신앙의 재구성과 확산을 도모하는 교리교육과 성경교육, 그리고 사회, 문화와 학문과 세계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이해하고 사회와 문화를 개혁해 가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기독교적 학교교육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종교개혁이 재각성될 때마다 항상 유효한 방법이었다.

한국교회가 다시 종교개혁을 요구받는다면, 다시 종교개혁으로부터 찾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무엇을 통하여 그 개혁을 실행할 수 있을까? 그것은 교육에 대한 새로운 결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개혁은 교육을 통해 확산된 종교적 사회운동이었기 때문이다. 